정보

개요
곡명: Symphony No. 104 in D major, Hob. I:104 “London”
작곡가: Joseph Haydn (1732–1809)
장르: 교향곡
작곡 시기: 1795년, Haydn의 두 번째 London 체류 기간
초연: 1795년 5월 4일 London의 King’s Theatre, Dr. Haydn’s Night 콘서트. Haydn이 이끈 공연으로 기록된다.
편성: 2관 편성, 팀파니와 현악 5부

IMSLP: Symphony No. 104 in D major, Hob. I:104 (Haydn, Joseph)

Wikipedia: Symphony No. 104 (Haydn)

Joseph Haydn의 Symphony No. 104 in D major, Hob. I:104 는 런던에서 작곡한 마지막 교향곡으로 , 네 악장 I. Adagio – Allegro, II. Andante, III. Menuet. Allegro, IV. Finale. Spiritoso 가 이 순서로 이어진다. “London”은 후대에 굳어진 별칭이며, 자필 총보와 1963년 및 1967년 비평판 계열이 작품의 구조와 공연 전승을 설명하는 기준 자료가 된다.

출판 정보와 자료

자필 총보는 Staatsbibliothek zu Berlin – Preußischer Kulturbesitz의 Mus.ms.autogr. Haydn, J. 40에 보관되어 있다. 1795년 작성된 39엽 자료의 표제에는 영국에서 작곡한 열두 번째 곡이라는 뜻의 문구와 Sinfonia in D 가 보이며, 마지막 부분에는 In Nomine Domini 와 Haydn의 자필 서명이 남아 있다. 자필 자료는 Henle HN 9072 연구용 총보와 Ulrich Wilker의 2016년 비평 보고서가 판본을 설명하는 출발점으로 삼는다.

현재 접근할 수 있는 편집 계열로는 Hubert Unverricht가 편집한 Joseph Haydn Werke, Series I, volume 18(1963), H. C. Robbins Landon의 Kritische Ausgabe sämtlicher Symphonien, volume XII(1967), 그리고 Henle HN 9072가 있다. Henle의 편집 원칙은 자필 총보를 주된 자료로 삼고, Johann Elßler가 만든 런던 공연용 목관 성부와 후대 필사 ·인쇄 성부를 대조하는 방식이다. 1801년 전후에는 Offenbach André와 Bonn Simrock의 인쇄 성부가 공표되었고 London Birchall 판도 유통되었지만 , 이 가운데 어느 판이 최초 인쇄인지는 자료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작곡과 초연의 연혁

Haydn은 1794~1795년 두 번째 England 체류 중 마지막 런던 교향곡 여섯 곡 가운데 세 곡을 1795년 시즌을 위해 썼다. Salomon이 조직하던 기존 구독 콘서트가 아니라 King’s Theatre의 Opera Concerts에 참여했으며 , Henle 서문은 이곳의 오케스트라가 Hanover Square Rooms보다 큰 약 60인 규모였다고 설명한다. 이 공연 환경은 작품이 런던의 공개 콘서트를 위해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며, 초연 당시의 정확한 좌석 배치와 악기 수에 관한 정보는 제한적으로 남아 있다.

Henle가 Haydn의 수첩을 근거로 제시하는 초연일은 1795년 5월 4일이다. Dr. Haydn’s Night 라는 표제 아래 Haydn 자신의 작품만 연주되었고 , 수첩에는 청중과 연주자들이 즐거워했으며 자신도 만족했다는 기록과 4,000굴덴의 수입이 함께 남아 있다. Los Angeles Philharmonic과 일부 프로그램은 4월 13일을 첫 공연일로 적지만, Edition HH의 비평과 Haydn 일기 대조는 이 날짜를 오류 가능성이 있는 표기로 다룬다. 기준
초연일은 5월 4일이며, 4월 13일은 별도 공연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충 기록으로 남는다.

Haydn이 건반을 앞에 두고 악단을 이끌었다는 전통적 설명이 있으며, Henle는 그 건반의 종류를
하프시코드인지 포르테피아노인지 특정하지 않은 채 기록한다. 또한 “London”과 “Salomon”은 Haydn이 자필 총보에 붙인 표제가 아니라 후대 목록과 수용에서 널리 쓰인 이름이다. 이 작품은 Viotti가 관여한 Opera Concerts를 위해 준비한 마지막 세 곡 가운데 하나로 분류되며, Salomon과 연결된 열두 곡이라는 명칭은
후대 목록에서 쓰인 별칭이다.

소요 시간

카탈로그와 프로그램은 전곡을 약 25~30분으로 제시한다. Schott/Eulenburg는 25분, IMSLP는 평균 27분, Universal Edition과 Tucson Symphony Orchestra는 29분, Los Angeles Philharmonic은 약 30분으로 안내한다. 반복기호와 템포에 따라 시간이 달라지며, Howard Shelley와 Orchestra della Svizzera Italiana 의 2009년 음반은 네 악장을 합쳐 약 28분으로 제시한다.

편성

Universal Edition의 세부 표기와 자필 ·필사 성부 자료를 기준으로 한 편성은 다음과 같다.

목관: 플루트 2, 오보에 2, A 클라리넷 2, 바순 2.
금관: D와 G 호른 2, D의 피콜로 트럼펫 2.
타악기: 팀파니.
현악: 제 1바이올린, 제 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

Haydn2032는 금관의 조성을 생략하고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각 2, 호른과 트럼펫 각 2, 팀파니와 현악으로 요약한다. 자필 총보의 마지막 엽과 Johann Elßler의 Do2 성부 묶음에는 제 2~4악장의 클라리넷 성부가 따로 남아 있다. 이 자료는 편성의 존재를 뒷받침하며 , 1795년 초연 악단의 인원과 배치에 관한 범위는 제한적이다 .

네 악장의 구성

I. Adagio – Allegro

첫 악장은 D단조에 가까운 느린 도입으로 시작해 D장조 Allegro 로 넘어간다. Hyperion의 Richard Wigmore는 도입이 전체 약 9분 가운데 약 2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한다. Allegro 는 소나타 형식으로 전개되며, 첫 주제가 A장조로 옮겨져 두 번째 주제 영역의 기능을 맡는 단일 주제적 관계가 두드러진다 . 발전부는 첫 주제 후반의 짧은 리듬을 다루고 B단조를 거쳐 재현부로 돌아오며, 재현부에서는 목관이 두 번째 주제의 재료를 변형해 잇는다.

II. Andante

G장조 Andante 는 현악이 주제를 제시한 뒤 목관과 단조 에피소드로 색채를 바꾼다. A단조와 D단조를 거치는 짧은 부분 다음에 주제가 현악과 바순에서 변형되어 돌아오며,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G단조와 B♭장조를 포함한 조성 이동이 진행된다. 마지막에는 G장조의 중심으로 복귀하고, 플루트를 비롯한 목관이 주제의 리듬과
선율을 더 뚜렷하게 드러낸다. 분석 자료는 이 악장을 변주적 원리에 기반한 느린 악장으로 설명하지만 , 세부 형식 명칭은 판본과 해설에 따라 다르게 정리된다.

III. Menuet. Allegro

Menuet. Allegro 는 D장조 미뉴에트와 B♭장조 트리오로 구성된다. Hyperion 해설은 미뉴에트의 오프비트 악센트와 급격한 강약 대비, 트릴 뒤에 놓인 두 마디의 침묵을 특징으로 든다. 트리오에서는 오보에와 바순이 목관 대화를 만들고, B♭장조의 중간 구간이 G단조로 이동한 뒤 미뉴에트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일부 IMSLP 메타데이터는 트리오를 D단조로 적지만, Henle와 Hyperion의 해설 및 표준 총보는 B♭장조로 일치한다.

IV. Finale. Spiritoso

Finale. Spiritoso 는 D장조의 빠른 소나타 형식 악장이다. 낮은 현의 지속음이 드론처럼 이어지는 동안 짧고 밝은 주제가 제시되고, 발전부는 F♯단조를 포함한 조성 이동을 거쳐 D장조 재현으로 돌아온다. 피날레의
선율은 런던 거리의 대구 외침 Live cod 또는 Hot Cross Buns 와 닮았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졌고, 후대
연구는 이를 에스테르하지 주변의 크로아티아계 선율 Oj Jelena 와 연결한다. 이 연결은 수용사와 청취
연상의 자료이며, Haydn이 특정 외침이나 민요를 의도적으로 인용했다는 증거와는 구분된다.

별칭과 피날레의 수용

“London”은 열두 편의 런던 교향곡 가운데 마지막 작품이라는 위치에서 생긴 후대의 통용 명칭이다. 독일어권에서는 “Salomon”이라는 이름도 쓰이지만, Haydn이 자필 총보에 적은 표제는 Sinfonia in D 와 영국에서 작곡한 열두 번째 곡이라는 기록이다. 별칭은 작품의 작곡 장소와 런던 청중을 연결하는 수용의 표지이며, 작곡가가 자필 총보에 적은 공식 표제는 따로 남아 있다.

피날레의 낮은 지속음과 선율을 런던 거리 외침 또는 Oj Jelena 와 연결하는 해설은 Music Academy of the West, Los Angeles Philharmonic, Tucson Symphony Orchestra, Hyperion 등에 반복해서 나타난다. 이 자료들은 사람들이 피날레를 어떻게 들었는지와 후대 연구의 방향을 보여 준다. 선율의 기원과 Haydn의 의도 사이에는 여전히 구분이 필요하다.

초연 자료와 연주 전통

1795년 초연에 관한 가장 구체적인 직접 자료는 Haydn의 수첩을 전하는 Henle 서문이다. Haydn은 5월 4일 공연의 청중과 연주자 반응을 긍정적으로 적었고, 공연 수입도 함께 기록했다. 건반 악기의 종류와 실제 연주 동작은 자료에 특정되지 않으므로, 현대 연주가 초연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20세기 녹음은 반복 선택과 악단 규모에서 서로 다른 전통을 보여 준다. Christopher Howell의 MusicWeb International 연재에 따르면 John Barbirolli의 1927년 녹음은 작은 편성으로 제 1·2악장 반복을 생략하고
피날레 반복을 포함했으며 , 1928년 녹음은 다른 반복 조합을 사용했다. Thomas Beecham의 1939년 녹음도 일부 반복을 줄였고, Kirill Ginzburg의 1951년 녹음은 네 악장에 반복을 모두 남긴 사례로 기록된다. 반복의 선택은 작품 본문 변경보다 당시 연주 시간과 편성 관행을 보여 주는 자료다.

Hans Rosbaud의 1956년 Berlin Philharmonic 녹음에 관해 Howell은 투명한 질감과 전진하는 목관 ·금관 · 팀파니를 강조한다. Richard Wigmore는 1993년 Charles Mackerras와 St Luke’s Orchestra의 녹음을 선명한 템포와 가벼운 아티큘레이션 , 절제된 비브라토로 평가하고, 좌우로 나눈 바이올린 배치가 응답 효과를 만든다고 설명한다. Mackerras가 104번 미뉴에트의 점 2분음표를 65로 잡은 선택도 Czerny의 1830년대 수치와 비교되어 논의된다. 이 평가는 특정 지휘자와 음반에 귀속된 해석이다.

주요 자료

G. Henle Verlag, Symphony D major Hob. I:104 “London”, HN 9072
Ulrich Wilker, HN 9072 Critical Report
Henle HN 9072 서문
Staatsbibliothek zu Berlin, Haydn 자필 총보
Deutsche Digitale Bibliothek, Mus.ms.autogr. Haydn, J. 40
H. C. Robbins Landon, Universal Edition: 104. Symphonie Haydn2032, Symphony Index
Richard Wigmore, Hyperion Records: Haydn Symphony No. 104 Richard Wigmore, Gramophone: Haydn Symphonies Nos 101–104 Christopher Howell, MusicWeb International Part 1
Christopher Howell, MusicWeb International Part 2
Music Academy of the West, Haydn and the folk melody
Los Angeles Philharmonic, Symphony No. 104 “London”
Tom Cooper, Edition HH review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03:50 UTC by 안준영
Updated 2026-10-04 10:03:50 UTC by 안준영